

TFT-LCD, 2007년 공급과잉 심화

현대증권, 1/4분기 공급과잉 6.6% 확대 ... 하반기 수급불균형 해소

현대증권은 2007년 1/4분기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디스플레이산업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다.

김동원 애널리스트는 “TFT-LCD 공급과잉은 2006년 4/4분기 3.2%에서 계절적 비수기인 2007년 1/4분기에 6.6%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06년 상반기에 이어 공급과잉 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11월1일 전망했다.

그러나 2007년 전체 TFT-LCD 공급 증가율은 19.8%로 수요 증가율 21.7%를 소폭 하회해 2007년 하반기로 갈수록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원 애널리스트는 “윈도우 비스타 출시로 인한 대형 모니터 수요증가와 2007년 하반기 LCD TV 패널 공급부족을 의식한 중소 TV 세트기업의 주문증가 등 수요강도에 따라 공급과잉 수준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2007년 상반기까지 디스플레이 산업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스플레이 부품기업은 고객기반이 넓고 성장성과 수익성이 뛰어난 곳을 중심으로 선별적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부품기업 가운데 최선호주로 해룡실리콘과 테크노세미캠을 제시하면서 관심종목으로는 한솔LCD과 디에스엘시디를 꼽았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01>